

尙火 李相和論

尹 致 富*

目 次

- | | |
|-------------------|-------------|
| 1. 들머리 | 3. 상화의 작품세계 |
| 2. 상화의 생애와 시대적 위상 | 3.1. 시 |
| 2.1. 생애 | 3.2. 소설 |
| 2.2. 시대적 위상 | 4. 마무리 |

1. 들 머 리

지금까지 이상화에 대한 주된 연구의 흐름은 시인으로서의 연구였다. 시인으로서의 연구였기 때문에 이상화를 논의할 때면 으레 몇몇 시편들, 이를테면 <나의 寢室로>·<매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末世의 歎嘆>·<二重의 死亡>·<緋音>·<街相>·<金剛頌歌> 등¹⁾을 통하여 저항적·감상적·퇴폐적·탐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 이 가운데서도 <나의 寢室로>·<매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각각의 작품론도 있다.

朴鳳宇; “마돈나, 슬픈 나의 寢室로”, 《女苑》, 1959.

金春洙; “李相和論: <나의 寢室로>를 중심으로”, 《詩論》, 송원문화사, 1974.

_____ ; “<나의 寢室로>의 내용전개와 構造”,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吳世榮; “어두운 빛의 美學: <나의 寢室로>의 作品分析”,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趙東一; “이상화의 <나의 寢室로> 분석과 이해”,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미적·경향파적·민족적 색조의 식민지 시대의 시인으로서 파악되었다.²⁾

그러나, 몇몇 시작품을 가지고 이상화를 논의한 것은 한정된 부분적인 논의로 일관되어 그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더우기 시작품에 비해 비록 수적으로 열세이기는 하나 소설·산문·평론 등의 작품들도 남기고 있어³⁾ 이들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시편과 소설작품에 한정하여 상화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좀더 넓히고자 한다. 물론 그의 작품세계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Welleck과 Warren이 말한 것처럼 작품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질적 연구(intrinsic approach)도 의미가 있지만 작품 이외의 문학 외적 지식을 도입하는 비본질적 연구(extrinsic approach)⁴⁾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상화가 처했

宋明姬: <나의 寢室로>의 상징구조와 수사적 기법”,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李起哲: “李相和의 <나의 寢室로>: 작품의 環狀조직과 구조분석”, 《한국현대시작품론》, 도서출판 문장, 1981.

金容稷: “植民地 시대의 창조적 감각”: <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理解”,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申東旭: “<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律格美”,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文德守: “李相和의 <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조국광복의 염원과 식민지적 현실인식”, 《한국 현대시 작품론》, 도서출판 문장, 1981.

2) ① 저항적 색조를 중심으로 논의한 글은 다음과 같다.

文德守: “李相和論: 抵抗과 죽음의 據點”, 《月刊文學》 8호, 1969.

金南石: “李相和: 抵抗意識의 反日帝熱火”, 《詩精神論》, 現代文學社, 1972.

金時泰: “抵抗과 挫折의 惡循環”, 《國文學報》,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74.

姜熙根: “藝術로 昇華된 抵抗”, 《月刊文學》 10권 3호, 1977.

曹秉春: “애앗긴 땅의 抵抗詩들”, 《月刊朝鮮》 5호, 1980.

李明宰: “李相和詩와 抵抗意識研究”,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② 퇴폐적·탐미적·감상적·저항적 색조를 중심으로 논의한 글은 다음과 같다.

李姓教: “李相和研究”, 《研究論文集》 제2집, 誠信女子師範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69.

③ 감상적·저항적·민족적 색조를 중심으로 논의한 글은 다음과 같다.

金擘東: “李相和研究 上·下”, 《震檀學報》 34·35집, 震檀學會, 1972, 1973.

3) 이상화의 작품으로 확인된 것은 시 64편(역시 1편 포함), 창작소설 1편, 번역소설 5편, 산문 11편, 평론 7편 등이다.

4) René Wellec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6, p. 73.

던 시대적 상황이 식민지 시대라는 독특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사적으로도 자아의 확립과 분열이라는 이중성을 공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전기적 사실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기적 연구의 관점에서 이상화의 작품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상화의 생애와 시대적 위상

2.1. 생애

이상화는 1901년(明治 34년)⁵⁾ 5월 22일(음력 4월 5일) 慶尙北道 大邱市 中區 西門路 2가 12번지(당시 本町 二丁目 12번지)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慶州이고 할아버지는 李東珍, 아버지 李時雨와 어머니 金愼子の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호는 無量·想華·尙火·白啞, 본명은 相和이다. 無量은 그가 18세경 문단에 데뷔하기 이전에 쓴 것으로 《開關》 31호(1923년 1월)의 〈文壇動靜〉에서 그의 호임이 증명되었으며, 想華는 1925년 《開關》 3월호에 사용했다. 尙火는 문단에 나온 이후에 가끔 사용한 것으로 《開關》(1926년 1월)에 〈無產作家와 無產作品〉을 발표할 때 사용한 예를 들 수 있고, 白基萬의 《尙火와 古月》에서 이상화의 호임을 증명할 수 있다. 白啞는 30년대 후반기에 고향의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백치와 병어리라는 뜻이다. 즉 無量은 불교적이요, 想華는 탐미적·상아탑적요, 尙火는 혁명적이요, 白啞는 자조적이라는 것에서 그의 사상적 추이와 심경의 변화를 알 수 있다.⁶⁾

Though the 'extrinsic' study may merely attempt to interpret literature in the light of its social context and its antecedents, in most cases it becomes a 'explanation, professing to account for literature, to explain it, and finally to reduce it to its origins (the 'fallacy of origins').

5) 金學東; “李相和研究(上)”, 《震檀學報》 34집, 震檀學會, 1972,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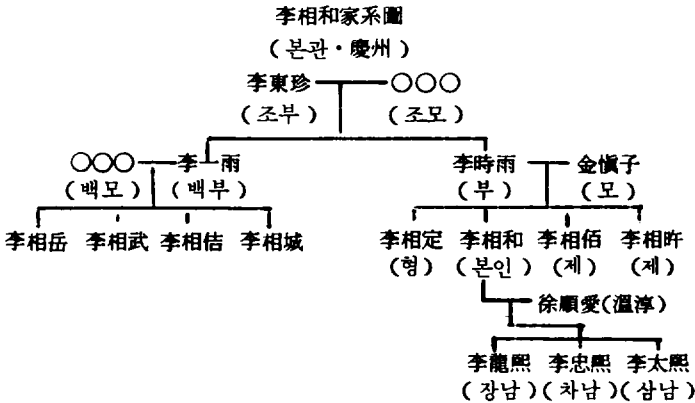
1900년 또는 1902년으로 된 곳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金學東 교수에 의해서 1901년이 바른 것이 밝혀졌다.

6) 白基萬; 《尙火와 古月》, 靑丘出版社, 1951, p.168.

이상화의 형제는 모두 넷으로 위로부터 李相定·李相和·李相佰·李相昨 등이다.⁷⁾ 형 李相定은 한때 민족 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⁸⁾뿐만 아니라 경신·계성·신명 등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에 종사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국민정부의 초청으로 中京 육군참모학교의 교관을 지냈고, 1939년에는 임시정부 議政院議員에 선임, 1941년에는 중국 육군 유격대 훈련학교의 교수를 지내는 등, 화중군 사령부의 고급막료로 남경전 한국전에 직접 참가했다. 아우 李相佰은 1930년 한국인으로서 일본 농구협회를 창설, 상무이사를 거쳐 일본 체육회 전무이사에 선임되었고, 1936년 제10회 올림픽 대회의 일본 대표단 총무로 베를린에 다녀오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조선체육동지회를 창설하여 그 위원장이 되고, 1946년 조선체육회 이사장을 거쳐 1951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46년에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종신위원에 선출되었다. 막내아우 李相昨는 수렵인이었다.

이상화의 가문은 대구에서도 명문으로 상화가 7세 때 부친인 又南 李時雨가 죽자 백부인 小南 李一雨의 영향 아래서 자랐다. 李一雨는 편모 슬하에 있는 상화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당시에 3천여 석의 부자였으며, 대구에서 명망도 높았던 사람이다. 소작인을 가혹히 착취하는 지주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소작료를 저울로 하여 후대하였기 때문에 소

7) 李御寧; 《韓國作家傳記研究(下)》, 同和出版社, 1980, p. 82.



8) 당시의 교장은 南崗 李昇薰이었고, 교감은 古堂 曹晚植이었다.

작인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다. 그는 友弦書樓를 창건하여 많은 서적을 비치하고 각지의 선비들을 모아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게 하였다.⁹⁾ 그는 또 達西女學校를 설립하고 부인 야학을 만들어 개화의 길을 열기에 노력하였으며, 평생 지조를 지켜 官選道議員의 자리에 나가기를 불응하였고 中樞院參議를 거절하였으며, 엄연히 배일의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다. 특히 그의 자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家庭私塾에서 독선생을 앉히고 교육을 받게 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던 선생들도 모두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닌 분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화 형제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스승은 김해 출신의 盧相乾이다. 언제나 삼베옷과 미투리를 신고 지내던 그는 그 무렵 의혈 청년의 기질을 지녀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투철한 지사였으며, 일찍부터 한학에 통달하였을 뿐 아니라 지리·역사·수학 등 신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노상건은 항상 학생들을 앞에 대하면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소상히 알려 주고 우리가 장차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다.¹⁰⁾

따라서, 백부 李一雨와 스승 盧相乾의 영향은 이상화의 성격 형성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 및 일제에 대한 저항적 정신 형성에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상화는 15세가 되자 상경하여 中央學校(현 中東學校)에 입학했다. 그는 桂洞 32번지 錢鎮漢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1918년에 3년을 수료하고 졸업을 하지 않은 채 대구로 내려갔다. 이미 그는 3학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인생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인 번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정신적 갈등은 1918년 여름부터 수개월간 방랑을 하였는데, 금강산을 비롯해서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 동안 산중에서 끼니를 굶기도 하였는데, 이 해 늦가을에 그를 궁금히 여기고 걱정하는 친구들 앞에 결인의 행색을 하고 나타났다.

미닫이를 열고 보니 衣服은 찢어빠진 여름옷을 입었고 졸으려진 어깨를 덮어 쓰며 얼굴은 마르고 타서 重病을 치르고 일어난 乞인이 틀림없었다. 그가 마루

9) 우현서루를 거처간 사람들은 1백 50여명이 넘었다. 그 가운데서도 張志淵·張志弼(必)·朴殷植 李東輝·曹成煥·金祉燮 등은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10) 노상건에게는 술한 일화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당시 옹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끝에 세상에서 빈축을 사던 閔泳徽와 친일파의 거두 宋秉畷·李完用の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참나무 지팡이로 난타하여 '盧작대기'란 별명을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앞에 짙애이를 세우고 방안을 들여다 보면서 「그동안 다—들 잘 있었는가?」하는 瞬間에 一同의 눈앞에는 번개불이 지나가듯 번쩍하였다. 「尙火다!」 相陌이 달려나가 尙火의 손을 잡으면서 「형님! 이게 웬일이요」 하고는 눈물이 글성 글성하였고 相陌는 형에게 人事할 겨를도 없이 안으로 달리었다. 어머니와 형수와 밤짓는 어멈까지 달려나왔고 慈堂은 尙火의 그꼴을 보고 어안이 막혀 「네가 이게 무슨일이냐」 한마디 말밖에 없었고 「후유!」 한숨을 뿜은후에 尙火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시었다.¹¹⁾

이와 같은 금강산 일대를 기행했던 경험은 직접적으로 <金剛頌歌>를 남길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이듬해 1919년 3월 1일에는 서울에서 已未獨立運動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났고, 대구에서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인 2일 저녁에야 알게 되었다. 이에 상화는 백기만 등과 함께 대구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중고등학교)의 학생 동원은 백기만이, 그리고 계성학교는 상화가 맡았다. 연락본부는 상화의 사랑채에 정하고,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는 許範·金在炤·河允實·金洙千·李崑熙·李相快, 계성학교 학생으로는 李次璽·鄭元祚, 신명학교는 林鳳仙·李善愛, 그리고 당시 신명여학교 부교장이었던 李在寅 등과 연결, 3월 6일 李萬集 목사가 정원조를 상화에게 보내어 8일 장날을 기해 오후 1시 정각에 독립선언을 하고 시위행진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7일에 상화는 선언문을 혼자서 등사했고, 백기만은 허범 등을 지도하여 태극기 300매를 박아냈다. 그러나, 독립운은 제대로 성사되지 않고 주동자들은 모두 감옥으로 넘어갔다. 상화만이 잘 피신하여 각 곳에 선언문을 살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등 운동을 계속하다가 서울로 탈출했다. 서울에서 그는 西大門區 冷洞 92번지 朴泰元의 집에 기숙했다. 박태원은 고향 대구의 친구로서 계성학교 출신이다. 그는 나중에 박태원이 젊은 나이로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二重의 死亡>을 남겼다.

1923년 상화는 프랑스로 가기 위해 동경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아테네 프랑스 학원에 적을 두고 불어를 배웠다. 그러나, 이 해 9월에 關東大震災가 일어나 不逞鮮人으로서 청년자위단에 붙잡혀 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1924년 봄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상화는 프랑스행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11) 白基萬; 앞의책, pp.145~146.

그의 교우관계는 朴泰元·李孝祥·徐東辰 등의 일반친우와 洪思容·朴鍾和·羅稻香·金八峰·朴英熙·玄鎮健 등의 문단친우가 있다. 이 외에도 李陸史·尹福鎮 등은 1940년대의 대륜학교 시절에 친해진 사람들이며, 李雪舟는 대구고보 때, 백기만은 1919년 3·1운동 때 대구에서 상화와 함께 거사의 주동자로 참여했던 친우들이다.

이상화는 1919년 12월 공주의 명문가 徐漢輔의 영애인 徐溫淳(順愛)과 결혼했다. 결혼을 한 후 상화 혼자서 상경하자 결혼 초부터 별거생활을 하였고, 그 후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1923년 동경에서 만난 威興 출생의 柳寶華와는 열렬한 사랑에 빠졌으며, 이는 〈나의 寢室로〉와 〈離別을 하느니〉의 시편을 낳게 하였다. 이 외에도 경남 출생의 孫華蓮, 대구의 林學福, 기생 출신의 安小王(玉卿)·金白姬 등이 있다.

상화가 처음으로 문단에 데뷔한 것은 1922년 1월 9일 《白潮》 창간호에 시〈末世의 歎嘆〉과 〈單調〉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이미 백조 동인으로 문단에 데뷔하기 전인 1917년 친구 白基萬·玄鎮健, 아우 李相佰 등과 함께 동인지 《炬火》를 간행하기도 했다. 1922년 5월 《白潮》 2호에 〈가을의 風景〉·〈To—〉 등 2편의 시를 발표하고, 3호에는 〈나의 寢室로〉·〈二重의 死亡〉·〈마음의 꽃〉 등 3편을 발표했다. 1924년 12월에는 《開關》에 〈虛無敎徒의 讚頌歌〉·〈訪問拒絕〉·〈池畔靜景〉 등을 발표하고, 1925년에는 《開關》·《黎明》·《朝鮮文壇》 등에 시를 발표하였는데, 《開關》에는 〈絳音〉·〈街相〉 등을, 《黎明》에는 〈金剛頌歌〉, 《朝鮮文壇》에는 〈離別을 하느니〉 등을 발표했다. 또한 〈斷腸〉·〈새로운 동무〉·〈艷福〉 등의 번역소설과 〈出家者의 遺書〉 등의 〈산문〉, 〈文壇側面觀〉 등의 평론을 발표하여 활발히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1926년에는 《開關》 1, 2호에 〈無產作家와 無產作品〉을 발표하였으며, 《開關》 6월호에는 〈예잇진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발표되었다. 1927년에는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1928년 《朝鮮之光》에 〈저무는 놀 안에서〉·〈비를 다고〉를 발표했으며, 1932년에는 단편 창작소설 〈初冬〉을 《新女性》에 발표하였다. 이후 그는 거의 작품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에 《春香傳》 영역, 국문학사 집필, 불란서시 평석을 간행할 목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¹²⁾

이상화는 1943년 4월 25일(음 3월 21일) 大邱府 明治町 二丁目 84번지에서 병

12) 白基萬: 앞의책, p.168.

환으로 사망하였다. 병인은 조선일보 총국을 경영할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는데 확실한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¹³⁾ 또, 이 날은 같은 고향 출신이며 백조 동인인 玄鎭健이 사망한 날이기도 한데, 부인의 말에 의하면 서울로 부음을 보낸 날 현진건의 사망을 알리는 부음이 왔다고 한다. 그의 유해는 慶尙北道 達城郡 花園面 벌리 1구 경주이씨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시비가 대구 달성공원에 세워졌다.

2.2. 시대적 위상

이상화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에 있어, 그가 처했던 시대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이상화를 저항적 요소가 강한 시인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그의 작품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어려움과 한 지식인이 겪었던 삶의 고통이 드러나 있다. 특히 이상화가 주로 작품을 쓴 기간이 1920년대와 1930년대라는 일제시대의, 민족이 가장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시대적 인식이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완전히 뿌리를 뽑히고 한반도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내에 잔존한 한국 민족 역시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공장 노동자화했다.¹⁴⁾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 엘리트들도 그들의 포부를 펼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다. 뜻이 있었으나 현실이 이 뜻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지적 엘리트들의 고뇌는 더더욱 컸다.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지 수탈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 민족의 항쟁은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거세게 일어났다.¹⁵⁾ 정치적 저항은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성립된 上海臨時政府로 상징된다. 상해정부는 聯通制를 실시하여 국내와의 연락을 확보하고, 20년에는 상해무관학교를 세우고, 중국 각 근관학교에 독립운동자들을 파견, 행동대를 훈련시키고, 만주의 독립군을 지원하고, 사료 편찬부를 두어 한국 독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료를 편찬했다. 그리고, 그 정부는 정부 기관지로 獨立新聞을 발행하고, 독립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

13) 일설에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도 한다. (李姓敎; 앞의 논문, p.151.)

14) 金泳謨, 《韓國社會學》, 法文社, 1978, p.216.

15)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1981, pp.139~143.

상화의 형 이상정도 바로 임시정부 議政院議員에 선임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군사적 저항으로는 만주 일대에서의 독립군의 활동과 국내 및 일본에서의 테러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洪範圖의 鳳梧洞戰鬪(1920), 金佐鎭의 靑山里 싸움(1920), 姜宇奎의 齊藤倭總督 폭격 사건(1919), 羅錫疇의 東洋拓殖株式會社 폭탄 사건(1926), 尹奉吉의 上海虹口公園事件(1933) 등이다. 경제적 저항은 1922년 8월 평양에서부터 曹晚植·金東元 등 기독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조선물산장려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일본 자본을 배척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민족적 운동으로 국산 장려를 위시하여 소비절약·금주·금연 등을 주장한 물산장려회의 주동으로 이루어졌다.¹⁶⁾ 사회적 저항으로 주된 것은 빈곤과 무지를 추방하자는 개량주의적 농촌 계몽 운동과 불평등의 날카로운 한 예인 衡平運動이다. 농촌 계몽 운동은 좌파의 농민조합운동과 우파의 문맹 퇴치 운동으로 대별될 수 있다. 좌파의 농민조합운동은 농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며, 문맹 퇴치 운동은 농민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의도의 소산이었다. 형평운동이라고 불리는 白丁解放運動은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자주 거부되자 거기에 분개하여 시작된 것이다. 문화적 저항은 3·1운동 이후 일체의 문화정책이라는 식민지 통치정책하에서 몇 개의 일간지와 잡지가 발간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저항의 2대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민족주의 세력은 安昌浩의 준비론을 거점으로 하여 민족의 교육·개조를 부르짖다가 조선주의의 확립으로 정착하여, 고전을 발굴하고, 한글 운동을 일으키며, 시조를 부흥하려 했다. 당연한 결과로 농민의 문맹 퇴치가 그 중요한 투쟁 목표를 이루었다. 그것은 鄭寅普·申采浩·朴殷植 등의 민족주의 사관, 趙潤濟·梁柱東·李秉岐 등의 고전 연구, 崔鉉培·金允經·李熙昇 등의 한글 운동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사회주의 세력은 1920년 2월 金光濟·李丙儀 등을 중심으로 무산대중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대회가 조직되며, 6월에는 安廓·張基郁·李秉儀 등을 중심으로 朝鮮青年聯合會가 형성되었다. 1924년에는 공산당이 조직되며, 1923년, 4년경부터 낭만주의적인 문화적 경향을 청산하기를 요구하는 金基鎭의 활동이 시작됐다. 또, 1925년에는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KAPF)이 형성

16)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4, p. 383.

되었다. 이 때의 사회주의 세력은 白南雲으로 대표되는 경제사학, 林和의 문학사 연구,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들로 대표된다. 상화가 민족주의에 기울여지면서도, 일시나마 경향적 색채를 떨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상화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열 아홉의 나이로 3·1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술로써 자신을 잊고자 노력했다. 자신을 잊으려 할수록 그를 지배하는 것은 현실이었고, 그 당시 지성들의 동질적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싹틔던 우주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고뇌는 그로 하여금 자아의 확립과 분열이라는 이중성을 공유하게 하였으며, 당시 시대적인 사회구조의 모순 속에서 오는 갈등과 더불어 상화의 작품 세계에 투영되었다. 따라서, 상화의 의식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큰 흐름은 우주와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 고뇌인 인간의 내면적 성찰의 문제와 사회 구조의 모순 속에서 오는 시대적 현실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상화의 작품세계

3.1. 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양상이 대립이라고 할 때, 문학작품의 이해에도 대립의 논리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는 곧 自我와 世界의 대립에 의해 작품이 이루어지고, 자아 또는 세계 중에서 어느 한쪽이 없다면 작품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¹⁷⁾ 作品外的 自我와 作品外的 世界의 대립적 양상이 한 작품 속에 투영되면서 그 작품만의 독특한 작품내적 자아와 작품내적 세계의 대립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상화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작품외적 자아와 작품외적 세계의 대립이 각편 속에 작품내적 자아와 작품내적 세계의 대립적 구조로 형상화되었다. 인간 이상화를 작품외적 자아라고 한다면 그가 체험했던 대립적 사실이나 관념을 포함한 모든 의식들은 작품외적 세계가 된다. 뿐만 아

17) 趙東一; “自我와 世界의 小說의 對決에 관한 試論”,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81, p.91.

나라 그의 모든 작품 속의 화자들은¹⁸⁾ 작품내적 자아가 되며, 이 작품내적 자아와 대립적 양상을 띠고 있는 그 대상이 작품내적 세계이다. 따라서, 이상화의 작품세계,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세계를 인상비평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분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종래에 논의되었던 이상화의 시세계는 처음에는 감상적·퇴폐적·탐미적 색조, 중간에는 저항적·경향파적 색조, 나중에는 민족적 색조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일관된 의식세계의 흐름을 추적했다기보다는 작품 한 편 한 편에 나타난 귀납적 분석에서 이루어졌으며, 인상비평적 느낌이 강하다. 이는 1920년대 우리 나라의 문학적 현실을 낭만주의적 풍조에다 두고 그 경향으로서 감상적·퇴폐적·관념적·정신지상주의적·서정적·탐미적·감각적·저항적·민중적·민족적 요소라고 설명한 데 그 원인이 있다.²⁰⁾ 그런데, 우리 나라의 문예사조가 서구의 문예사조와는 그 수용과 전개과정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혼류의 양상을 띠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1920년대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동인지 및 준동인지들의 성격이 나름대로 독특한 색깔을 지녔다는 데서 기인된다. 어느 한 잡지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칫 총체성을 파악하는 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까지 《創造》는 사실주의적 경향, 《廢墟》와 《白潮》는 낭만주의적 경향, 《開關》은 계급주의적 경향, 《朝鮮文壇》은 민족주의적 경향, 《文藝公論》은 절충주의적 경향 등으로 검토하여 왔다. 여기서 우리는 경향이라는 말에서 암시받을 수 있듯이 이들 잡지들이 이러한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 《創造》=사실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상화만 하더라도 그가 발표한 잡

18) C. Brooks &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0, p.150.

The speaker says that he hears the "mind-forged manacle" in every cry.

19) 李姓教; 앞의 논문.

金擘東; 앞의 논문.

李善榮; 앞의 논문.

李明宰; 앞의 논문.

20)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人間社, 1961, pp.240~276.

지나 일간지는 다양하다.²¹⁾ 《白潮》 동인으로 문단에 데뷔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開關》에 더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²²⁾ 《開關》에 더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그의 시세계를 계급주의적 경향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開關》의 그의 작품들은 계급주의적 경향과는 거리가 있으며, 아울러 《白潮》의 작품들도 낭만주의적 경향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화의 시세계를 그의 전기적 사실들과 대비시킴으로써 그의 의식세계의 흐름과 그 변모 과정, 나아가 시대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마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화가 작품이라는 것을 맨 처음 쓴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그의 나이 열일곱 살 때 백기만·이상백 등과 함께 대구에서 《炬火》라는 습작집을 프린트판으로 발간했다는 데서이다. 그러나, 여기에 발표된 작품들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습작기의 시의식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그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번민에 빠졌던 중앙학교 3학년 시절로 이러한 정신적 고뇌가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듬해 여름 금강산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를 방랑하면서 자아와 세계의 문제들에 깊은 성찰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금강산의 기행은 《金剛頌歌》라는 시편을 낳을 동기가 되었다. 비록 《金剛頌歌》의 발표가 1925년, 그의 나이 25세 때라고 하지만 그의 체험적 사실이 없었다면 이러한 작품을 낳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1925년에 작품이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창작연대와 동일할 수는 없다.²³⁾ 이런 점에서 볼 때 《金剛頌歌》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번민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열여덟 살의 이상화인 작품외적 자아가 인생과 우주에 대한 번민으로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작품외적 세계와 대립되었을 때 화자

21) 그의 작품들이 발표된 잡지로는 《白潮》·《開關》·《朝鮮文壇》·《黎明》·《新民》·《新女性》·《文藝運動》·《朝鮮之光》·《別乾坤》·《朝鮮文藝》·《萬國婦人》·《新家庭》·《詩苑》·《朝光》·《文章》·《中央》 등 16종과, 신문으로는 《東亞日報》, 《時代日報》·《朝鮮日報》·《朝鮮中央日報》 등 4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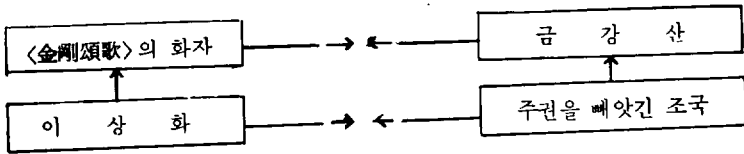
22) 그의 시작품의 경우 《白潮》에는 7편, 《開關》에는 25편이 발표되었다.

23) 李起哲編; 《李相和全集》, 문장사, 1982, p. 224.

「印象記를 쓰라는 註文에 그것은 需應치 못하고 이 散文詩를 내는 것은 未安한 일이다. 印象記를 쓴데도 讀者의 金剛山에 對한 感興을 이르기에는 同一하길 다기보담 오히려 나홀까하여 지난해 어느 新聞에 한번 내었던 것을 다시 내면서 핑계 비슷한 말을 붙여둔다」

의 작품내적 자아와 금강산의 작품내적 세계의 대립적 구조로 나타난 것이 〈金剛頌歌〉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 분 시 편	작품내적 자아	작품외적 자아	작품내적 세계	작품외적 세계
金剛頌歌	화 자	이 상 화	금 강 산	주 권 을 빼 앗 긴 조 국



다시 말해서 〈金剛頌歌〉에 나타난 작품외적 자아는 25세 때의 이상화가 아니라 18세 때의 이상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金剛頌歌〉의 대립적 구조도 25세 때의 이상화인 작품외적 자아와 작품외적 세계의 대립이 아니라 18세 때의 이상화인 작품외적 자아와 작품외적 세계의 대립이다.

金剛! 오늘의歷史가보인바와같이 朝鮮이죽었고釋迦가죽었고 地藏彌勒모든菩薩이죽었다. 그러나 宇宙生成의路程을밟노라—때로變化되는 이過度現象을보고 묵은그時節의朝鮮얼굴을찾을수없어 朝鮮이란그生成全體가 죽고말았다—어리석은말을못하리라 없어진것이란다 맛 묵은朝鮮이죽었고 묵은朝鮮의사람이죽었고 묵은네목숨에서 곁방사리하던印度의모든神像이죽었을 다름이다, 恒久한青春—無限의自由—朝鮮의生命이綜合된너의 存在는 永遠한自然과 未來의朝鮮과 함께 기리누릴것이다.²⁴⁾

전체가 12연으로 된 이 산문시는 금강산을 의인화하여 그 淨偉로움을 예찬하는 데서 그 첫째 연이 시작되는데 위에 인용된 부분은 그 여섯째 연이다. 주권이 상실된 식민지 시대에서 조선이 죽었고, 석가가 죽었고, 지장미륵 등 모든 보살이 죽은 것처럼 보이나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며,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주 생성의 노정을 밟는 변화 과정 속의 한 현상일 따름이다. 없어진 것은

24) 李起哲; 앞의 책, pp. 222~223.

묵은 조선이며, 영원한 젊음, 끝 없는 자유를 지닌 조선의 생명이 종합된 금강산의 존재는 미래의 조선과 함께 영원할 것으로 믿는다. 주권을 빼앗긴 조선이 작품외적 세계라고 할 때 이는 작품외적 자아인 18세의 이상화와 대립적 양상을 띤다. 더우기 〈金剛頌歌〉는 그의 초기 시의 경주와 같이 이미 있어온 한국 시가의 정서적 흐름을 따르고 있다.²⁵⁾ 1920년 작의 〈그날이 그림다〉, 1921년 작 〈夢幻病〉, 1922년에 발표된 〈末世의 歎嘆〉 등이 표현이라기보다 노래에 가까운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작품외적 세계가 주권을 빼앗긴 조국이나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들 외에도 여러 편에 나타나고 있다. 〈絢音〉·〈가장 悲痛한 祈慾〉·〈暴風雨를 기다리는 마음〉·〈清涼世界〉·〈朝鮮病〉·〈招魂〉·〈도-교-에서〉·〈이해를 보내는 노래〉·〈慟哭〉·〈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비갠아름〉·〈病的季節〉·〈大邱行進曲〉 등이 바로 이러한 의식의 흐름 가운데서 씌어진 시편들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작품외적 자아와 작품외적 세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작품내적 세계도 동일하다. 물론 약간의 변이적 요소는 있으나, 그것의 근본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은 이들 시편이 언제 발표되었느냐에 있었다. 상화의 시편 가운데 지금까지 발표연대가 확실한 것으로서 34편이 1925년과 1926년에 발표되었다. 이 시기는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문과 평론도 발표된 것을 볼 때 43년간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한 창작활동을 한 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간 이상화의 작품외적 자아와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작품외적 세계의 대립적 구조를 이룬 작품들이 이 시기에 많은 것은 그의 작품량과 비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24년 말엽을 기점으로 상화의 시세계가 초기시에서 보인 퇴폐적·탐미적·감상적 경향으로부터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²⁶⁾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의 수치로 그 경계를 기르는 것이 한 시인이자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함에 있어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적어도 상화의 시세계에 있어서 당시의 시대적 위상을 노래한 것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하나의 의식 속에서 면면히 이어진 것이지, 그것이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의식세계가 변화했던 것이 아니다. 그가 살았던 1901년부터 1943년까지는 식민지 시대라는 동일한 환경이었고, 그것이 강도는 다르나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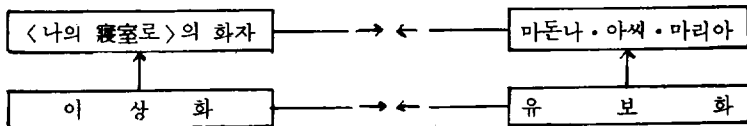
25) 朴喆熙: “自己恢復의 詩人: 李相和論”, 《現代文學》 제312권, 1980, p.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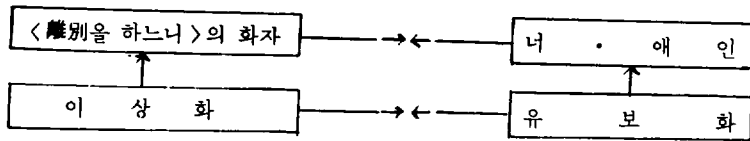
26) 金稔東: “李相和研究(下)”, 《震檀學報》 35집, 震檀學會, 1973, p. 66.

일한 자극으로 상화에게 가해졌다. 또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도 열아홉의 나이로 독립운동을 하던 상화나 임종 직전의 상화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또 다른 작품외적 세계에 똑같이 대립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관된 흐름의 시작품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전기적 사실들이 뒷받침한다. 어려서부터 배일적 지주의 한 사람이었던 백부 이일우의 영향 아래서, 그리고 노상건이라는 지사적 스승의 가르침에서, 3·1운동 당시 대구에서 학생 운동을 조정하다가 피신하면서, 1922년 관동대진재의 수난에서, 1927년 의열단 李鍾巖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1936년 그의 백씨 상정 장군을 만난 혐의로 수감되면서 그의 정신세계에는 시대적·역사적 현실이 하나의 커다란 작품외적 세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상화로 하여금 일관된 작품세계를 이룩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상화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작품외적 세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를 둘러싼 인간관계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1923년 동경에서 만난 유보화와의 관계는 상화의 시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그녀와 만나 열렬히 사랑했던 심정을 노래한 것이 <나의 寢室로>라면 한달 가량의 간호에도 아랑곳 없이 그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은 그녀의 임종을 노래한 것이 <離別을 하느니>이다. <나의 寢室로>에서의 작품내적 자아인 화자와 작품내적 세계인 마돈나와의 대립적 구조와 <離別을 하느니>에서의 작품내적 자아인 화자와 작품내적 세계인 애인과의 대립적 구조와는 동일구조이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편	작품내적 자아	작품외적 자아	작품내적 세계	작품외적 세계
나의 寢室로	화 자	이 상 화	마돈나·아씨· 마리아	유 보 화
離別을 하느니	화 자	이 상 회	너·애인	유 보 화





즉 위 도식에서 보면 마돈나=애인의 등식이 성립한다. 이는 마돈나를 어떤 상징적 의미로 보아 조국²⁷⁾ 또는 어떤 추상적 연인으로 보는 감정들을 배제하게 된다. 설령 <나의 寢室로>의 마돈나적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離別을 하느니>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마돈나를 부르는 그의 저 有名한 詩가, 비록 이것은 그의 나이가 十八 歲되던 해, 即 一九一八年에 草稿된 것으로 알려워져 있지만, 그리고 <白潮> 創刊號에 이 詩가 發表된 것은 一九二二年 末頃이오, 相和가 柳寶華嬢과 서로 알게 된 것은 一九二三年 봄이므로 年代가 서로 어긋나기는 하지만, 이 詩와 柳寶華嬢과는 神秘스러운 連絡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²⁸⁾

상화가 유보화를 처음 만난 것이 1923년이며, 유보화가 상화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1925년 봄이다. 그런데, <나의 寢室로>는 1923년 9월 <白潮>에 발표되었으며, <離別을 하느니>는 1925년 6월 <朝鮮文壇>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八峰 金基鎭이 지적했던 이 시와 유보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차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

「마돈나」지금은밤도, 모든목거지에, 다니노라 疲困하야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트기전으로, 水蜜桃의베가슴에, 이슬이맺도록달려오느라.

「마돈나」오렴으나, 비집에서눈으로 遺傳하든 眞珠는, 다두고몸만오느라,
빨리가자, 우리는밝음이오면, 어떤지도모르게숨는두벌이여라.

「마돈나」구석지고도 어둔마음의거리에서, 나눈두려워 蜷며기다리노라,

27) 조동일; “김소월·이상화·한용운의 님”, 《우리 문학과와의 만남》, 弘盛社, 1981, p. 269.

28) 金八峰; “李相和형”, 《新天地》 9卷9號, 1954, p. 154.

아, 어느듯 첫닭이 울고——뭇개가 짓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듯느냐.²⁹⁾

엇지면 너와나 찌나야겠으며 아모래도우리는 난호야겠느냐?
남몰리 사랑하는 우리사이에 우리몰리 離別이 울줄은 몰랐서라.

꼭두로 오르는情熱에 가삼과입설이 썩러 말보담숨결조차 못쉬노라.
오늘밤 우리둘의목숨이 뚝결가치보일 애타는네맘속을 내어모르라.

애수아 하늘을보아라 하늘이까라짓고 쌍을보아라 쌍이썩졌도다
애수아 내몸이 어제가치보이고 네몸도아즉살았서 내겨테 안졌느냐?³⁰⁾

처음 시는 <나의 寢室로>의 1, 2, 3연이고, 나중 시는 <離別을 하느니>의 1, 2, 3연이다. 이 둘은 호홉에서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면에서도 각 연이 2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들 시의 외현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현적 대립의 구조까지도 일치하게 한다.

또한 그는 유보화뿐만 아니라 친우 朴泰元의 죽음을 노래한 시도 있다. ‘가서 못오는 朴泰元의 애뜻한 靈魂에 바침’이라는 부제로 된 <二重의 死亡>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哭子詞>, ‘어려서 돌아간 인순의 신령에게’란 부제가 붙어 있는 <쓸어져 가는 美術館> 등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립적 구조를 노래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역사적 인식의 문제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인식의 문제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성찰을 더욱 심화시켜 자아 성숙의 내적갈등, 실존적 본질에 대한 확인, 지고한 윤리에의 문제로까지 확대하게 한다.

혼자서 곱흔 밤에 별을 보듬에
갓모를 白砂場에 모래알 한알가치
그리도 적게 세인 나인 듯하야
갑갑하고 애답다가 눈물이 되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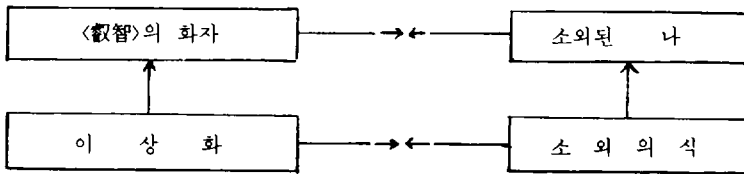
29) 李起哲: 앞의 책, p. 84.

30) 앞책, p. 142.

31) 앞책, p. 220.

자기 존재의 한계를 노래한 <叢智>는 전체 4행¹⁾으로 된 짧은 시로서 상화의 시들 가운데서 보기 어려운 억제, 압축된 표현으로 되어 있다. 화자인 작품내적 자아와 소외된 나의 작품내적 세계가 대립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 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편	작품내적 자아	작품외적 자아	작품내적 세계	작품외적 세계
叢 智	화 자	이 상 화	소외된 나	소 외 의 식



무한대의 우주 공간에 있는 무한량의 별들을 보고, 끝 없는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로 성찰한 이 시는 특히나 작품내적 자아가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성찰은 식민지 시대가 주는 일면적 요인만이 아닌 그에게 주어졌던 인간관계의 문제까지도 포괄된 총체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세계보다 자아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던 작품으로는 <嘲笑>·<訪問拒絕>·<獨白>·<先驅者의 노래>·<저르는 놀 안에서>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상화의 시세계는 시대적·역사적·사회적 인식 및 인간관계에서 오는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 작품들과 자아성찰의 자아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 작품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3.2.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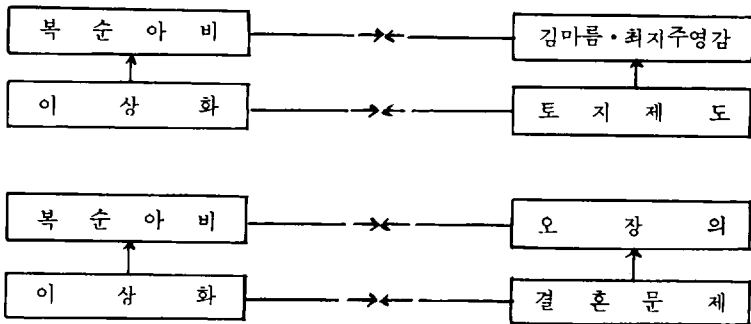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상화는 1편의 창작소설과 6편의 번역소설을 남겼다. 6편의 번역소설은 1925년에 발표된 <斷腸>(단편)·<새로운 동무>(단편)·<艷福>(장편)과 1926년에 발표된 <巴里的 밤>(단편)·<死刑받는 女子>(단편) 등

이다. 이 가운데서 <斷腸>은 미국 작가 Washington Irvin의 작품을 번역한 것이며, <새로운 동무>와 <巴里的 밤>은 프랑스 작가 Paul Morand의 작품을, <斷福>은 프랑스 작가 Maupassant의 작품을, <死刑받는 女子>는 스페인 작가 Blasco Ibáñez의 작품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번역소설로 이상화의 소설세계를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많아 여기서는 그의 창작소설인 <初冬>에 한하기로 한다.

<初冬>은 1932년 10월 <新女性>에 발표되었던 그의 유일한 창작소설이다. 그가 <初冬>을 발표한 이 시기는 이미 다섯 편의 번역소설을 발표하고 난 이후이며, 시작품의 발표도 뜸한 시기이다. 또한 전기적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시기는 거의 탕진해 버린 가산을 정리해야 했으며, 談交莊이라는 사랑방 모임도 끝을 맺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것이 <初冬>이라는 단편소설이다.

<初冬>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내적 자아인 복순아비와 작품내적 세계인 김마름 및 최지주 영감과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전반부와 작품내적 자아인 복순아비와 작품내적 세계인 오장의와의 이야기로 된 후반부가 그것이다. 전반부에 나타난 작품외적 세계가 당대의 토지제도라고 한다면, 후반부에 나타난 작품외적 세계는 결혼문제이다. 토지제도나 결혼문제는 당시 소작농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가난과 직결된다. 가난했기 때문에 소작농으로서 김마름에게 요공으로 집에서 기르던 붉노랑 빛깔의 수탉 한 마리를 갖다 주어야 했으며, 최지주 영감의 생신에는 짚신을 팔고서라도 육십전의 쓸쓸한 암탉 한 마리를 내놓아야 했다.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복순아비에게 있어 복순이는 끊임없는 고문인요 위협이며, 맹장적 존재가 되고 늘 속히 출가시키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는 수탉과 암탉을 김마름과 최지주 영감에게 헌납함으로써 소작농으로서의 마지막 지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딸 복순이를 오장의 아들과 약혼시킴으로 오장의에게 삼백선냥(삼십오원)을 받게 되어 이 돈으로 훈공을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순이의 결혼은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며, 가난에 대한 복순아비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시 편	구 분	작품내적 자 아	작품외적 자 아	작품내적 세 계	작품외적 세 계
	初冬	전반부	복순아비	이 상 화	김 마 름 최지주영감
후반부		복순아비	이 상 화	오 장 의	결혼문제



이상의 〈初冬〉에 나타난 대립적 구조는 상화의 시세계의 한 흐름이었던 자아보다는 세계에 비중을 둔 작품들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初冬〉 역시 자아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가난이라는 세계쪽에 관심을 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대 사회적 구조의 모순에서 야기되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전형적 인물인 복순아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소작농으로의 전락은 일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질곡이었으며, 이는 상화로 하여금 세계에 대립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식민지 시대에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족을 보았을 때 그것은 상화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시나마 경향파적 집단에 가담했는지도 모른다.³²⁾ 그러나, 세계에 대한 관심만이 아닌 실존적 본질과 연결되는 자아 성숙의 내적갈등은 이데올로기 문제에 안착할 수 없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경향파적 분위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나 상화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심화된 자아 발견의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初冬〉은 당시에 나타난 사회현실의 일면을 그려낸 작품으로 보아야지,

32) 白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0, p. 338.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고민했던 경향파적 작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에 발표된 시편 <觀智>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이미 그는 세계의 문제들을 자아의 문제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初冬>은 상화의 정신세계에 나타나는 한 흐름인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던 당시의 사회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마 무 리

이상에서 상화의 생애와 시대적 위상, 그리고 그의 작품세계를 시편과 소설 작품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상화가 살았던 43년간은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시대였으며, 그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시대적·역사적·사회적 현실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괴로와 했다. 그런 만큼 그의 현실 인식은 곧 작품 속에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화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몹시 중요한 세계적 문제로서 그의 작품을 이루어내는 또 다른 요소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상화의 작품세계를 몇몇 시작품에 국한시켜 처음에는 감상적·퇴폐적·탐미적 색조로, 중간에는 저항적·경향파적 색조로, 나중에는 민족적 색조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종래의 연구 태도는 시작품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산문과 평론에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그의 시세계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품을 자아와 세계의 대립적 구조로 보았을 때 그의 작품세계는 시대적·역사적·사회적 상황 및 그를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야기된 세계쪽에 관심을 보인 작품들과 실존적 본질에 대한 자아 성숙의 내적갈등을 노래한 자아쪽에 관심을 둔 작품들로 끝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시작품뿐만 아니라 유일한 창작소설인 <初冬>에서도 세계쪽에 중점을 둬으로써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白基萬; 《尙火와 古月》, 靑丘出版社, 1951.
2. 鄭鎮圭編; 《李相和全集》, 文學世界社, 1981.
3. 李起哲編; 《李相和全集》, 문장사, 1982.
4. 金學東; 《李相和作品集》, 螢雪出版社, 1982.
5. 金烈圭·申東旭編; 《李相和研究》, 새문社, 1981.
6. 李御寧; 《韓國作家傳記研究(下)》, 同和出版公社, 1980.
7. 김용직편; 《한국 현대시 작품론》, 도서출판 문장, 1981.
8. 金學東; 《韓國近代詩人研究(I)》, 一潮閣, 1974.
9.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1.
10. 金允植·김현; 《韓國文學社》, 民音社, 1981.
11. 白 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1.
12.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80.
13.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81.
14. 曹南鉉; 《小說原論》, 고려원, 1982.
15. 金泳謨; 《韓國社會學》, 法文社, 1978.
16.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4.
17. C. Brooks &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0.
18. R. Wellec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6.
19. 金八峰; “李相和형”, 《新天地》9卷 9號, 1954.
20. 李姓教; “李相和研究”, 《研究論文集》제2집, 誠信女子師範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69.
21. 文德守; “李相和論: 抵抗과 죽음의 據點”, 《月刊文學》8호, 1969.
22. 金學東; “李相和研究(上)·(下)”, 《震檀學報》34·35집, 震檀學會, 1973.
23. 李善榮; “植民地時代의 詩人の 姿勢와 詩의 成果: 李相和의 경우”, 《創作과 批評》제9권2호, 創作批評社, 1974.

24. 金時泰; “抵抗과 挫折의 惡循環”, 《國文學報》 6집, 제주대학 국어국문학 회, 1974.
25. 金春洙; “李相和論: <나의 寢室로>를 중심으로”, 《詩論》, 송원문화사, 1974.
26. 朴喆熙; “自己恢復의 詩人: 李相和論”, 《現代文學》 제312권, 1980.
27. 조동일; “김소월 · 이상화 · 한용운의 님”, 《우리 문학과와의 만남》, 弘盛社, 1981.